

글

*

그는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 물론 간혹 실적을 위해서, 허락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글을 쓰곤 했다. 그것들에 는 보통 서식과 숫자, 그리고 이모지가 함께 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글이 글로서 완결되는 일 에 관해 그가 무지렁이와 마찬가지로였다라는 그런 얘기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에게 글을 써야 할 일이 점점 많아졌다. 글을 쓰지 않던 사람이 글을 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 우선 그는 본 것을 언어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가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 였고, 그 감상으로 인해 본 것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었는지를 글로 적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의 글을 서두에서부 터 결말까지의 과정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시간을 언어로 바꾸어야 하며, 아무리 글로 채워도 설명되지 않는 어떤 것을 위 해 글의 행간을 배치해야 한다. 즉, 그가 보고, 겪고, 마음으로 그린 일들이 언어로 변화되는 과정,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무엇이든 글로 바꾸는 과정 자체를 그는 신경 써야 했다.

그는 글이라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사물을 문자로 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공책을 볼 때, ‘공책’ 또는 ‘메모를 하다가 만 공책’, ‘검은 표지의, 선이나 표 따위로 구획되지 않은 공책’, ‘몰스킨에서 나온, 떡제본으로 된, A6 사이즈의 공책’ 등의 언어로 바꿔 보고는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변환한 언어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경우, 글의 순서를 뒤섞거나, 단어를 바꾸 어 넣거나, 행간을 띄워 여백을 만들기도 했다.

*

어느 날, 그는 오전 10시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깬다. 채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볐다. 전날 그는 새벽 3시까지 글을 쓰고 자 리에 누웠다. 천장에 단어들이 떠다녔다. 그는 그것을 읽고 바꾸느라 날이 밝아서야 잠에 들었다. 여하튼 그는 매우 고단 했지만 일어나야 했다. 시야가 흐렸다.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트는데, 어렴풋이 ‘수도꼭지’라는 글자가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본 순간, 그는 기함했다. 그가 본 장면은 거울 안에 비친, 세수를 한 본인의 얼굴이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의 눈 앞에는 ‘거울, 닦지 않아 뿌연 거울, 화장 실의 큰 거울’, ‘얼굴, 나의 얼굴, 아침의 나의 얼굴, 세수를 한 나의 얼굴’이라는 글 뿐이었다. 마치 온 세상이 없어지고 문 자만 남은 듯, 글이 깜빡거렸다. 그가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면, 그 글은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반사된 세수를 마친 나의 얼굴’로 변했고, 그가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 그 글은 ‘얼굴이 도리도리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도리도리’ 로 바뀌었다.

*

주변의 모든 사물이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많은 일들이 단순 해졌다. 예를 들어 친하지 않은 지인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졸려 보이는, 커피를 들고 있는 이OO’와 같은 문 자로 다가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인의 모습은 ‘예민한 부분을 들킨 것 같은, 방금 들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은 이OO’이라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 있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그는 쉽게 모든 것 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전의 시기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모든 시각적인 요소가 언어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 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보다 큰 문제는, 그가 그의 앞에 무수히 떠다니는 글들을 수정하고 싶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수정 충동은 그에게 당연했다. 그의 앞에 나타나는 사물의 모습은 그가 사물을 의식 없이 언어로 변환했을 때의 원시적인 모습과 같았 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그는 주로 그렇게 변환시킨 언어를 주물럭거리며 마음에 들게 바꾸곤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 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자들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가끔은 언어들에 치어 눈을 감았다. 그러면 그의 생각들이 감은 눈 안으로 들어와 글로 나타났다. 어쩔 때는 울고 싶었다.

‘울고 싶다. 눈물은 안 나는데. 울면 해결되나. 울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지만 어찌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나는 바 보다. 바보라서 울고 싶은가?’

그는 그 지저분한 언어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

‘이렇게는 못살겠다’라는 글이 그의 안에 자리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앞에 떠오르는 글에 수정을 시도했다. 마음처럼 되진 않았지만, 살아 있는 것에는 수정이 수월한 편이었다. ‘시린 손을 비비고 앉아 있는 김OO’을 본 그는, ‘냉난방 온도 조절기 리모컨’을 찾아 ‘전원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린 손을 비비고 앉아 있는 김 OO’을 보니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김OO’으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김OO은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냈기에, 그는 김OO이 이전보다 매우 아름다워졌다고 짐작했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변화에 그는 흡족했다. 그는 글을 쓸 때, 문자를 바꾸고 여백을 삽입하는 등의 과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글이 나아지는 현상을 목격하곤 했다. 살아있는 것에 수정을 가할 때, 수정되는 대상의 의지와 반응에 따라 그 수정은 정도가 변화되기도 하고, 의도보다 총만해지기도 했다. 그는 그것이 꼭 글을 수정할 때의 의도치 않은 항상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사물로 그 수정을 하나씩 옮겨갔다. 그 일은 만만치 않았다. 물론 그는 ‘더럽고 어질러진 책상’을 ‘깨끗하고 빈 책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수정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

그는 수정을 멈추지 않았다. 사물을 어떻게 복합적인 언어로 재조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에 우선 사물을 부수거나, 분해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단어가 될 때까지 분해된 것을 재조립하거나 다른 공간에 걸고, 색을 입혔다. 그래도 글이 완성됐다 싶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을 다시 부숴다. 처음으로 돌아와 다른 방식으로 조립하고, 공간을 변형하고, 색을 바꿨다. 어느 정도 적당한 글이 되었을 때, 그는 사물의 거리를 조정하고, 특정 부분을 연마하고, 몇 개의 조각을 뺐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다 다 되었다 싶었을 때, 그에게 보이는 사물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하나의 글이었으며, 적당히 채워졌으면서도 빈, 처음 읽어 보는 단락이었다.

*

사람들이 보는 그의 글은 하나의 조각 작품이었다. 그는 조각가로 유명해졌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글로밖에 볼 수 없었다.

*

He wasn't a writer at first. Sometimes, of course, he'd occasionally write to seek permission, to communicate, or to help with his job. But these tasks were often accompanied by templates, numbers, and emojis. So, when I say he wasn't a writer, it means that he didn't have much experience in presenting written words as finished products.

At some point in life - hard to pinpoint when - his writing workload began to increase. For someone who isn't a professional writer, there are several important steps to take to write effectively. First, he has to translate what he saw into words. He has to describe the visuals, explain how they appear to him, and how they may have been altered due to his own perceptions - all in writing. Furthermore, he needs to convert the sequence of events into words to make his writing more coherent. He has to decide what to include and what to exclude. Also, he must structure his writing even when the language fails at capturing the intended meaning. In other words, he has to be conscious of the process of converting all his perceptions and imaginations into language — or, more simply put, the process of turning anything and everything into words.

In order to tackle the unfamiliar territory of writing, he devised an exercise of seeing things as words: whenever he saw an object, he would immediately transform its image into words. For example, a notebook would become a “half-used notebook,” a “black cover notebook with blank pages,” an “A6 size, glue-bound Moleskin notebook,” et cetera. If a particular phrase didn't work for him, he would shuffle the order of the words, change its components, or experiment with line spacing until he found a form he liked.

*

One morning, he woke up to the sound of his 10 a.m. alarm. Rubbing his eyes open, he realized he had stayed up writing until 3 a.m. the night before. Words were floating across the ceiling. He spent hours reading them and making changes and couldn't get to bed til morning. He was exhausted but he had to get up. His vision was blurry. He was on autopilot as he moved out of his room and into the bathroom, completely unaware of his surroundings. As he turned the tap to wash his face, he briefly registered the written word 'faucet' in front of his eyes.

As he washed his face, he gazed into the mirror and was suddenly jolted by shock. Instead of the expected reflection of his clean, wet face, he saw a group of alternating phrases flashing before his eyes. The words read, “a mirror, a foggy mirror from a buildup of smudges, a large bathroom mirror,” and “a face, my face, my face from this morning, my face that's just been cleaned.” The words flickered like a glitched screen as if the entire world had vanished without them. When he turned his face to the left, the text changed in real-time to “a fresh face that's been turned to the left revealing the opposite side.” When he shook his head from side to side, the words changed to “Shake, shake, shake, face to the left and right, back to the left. Again to the left and shake, shake.”

*

The fact that everything around him got reduced to text was shocking in and of itself. For him, however, it actually simplified a lot of things - in a good way. For example, when he bumped into his acquaintance on a street whom he didn't know very well, that person became a text that read “sleepy-looking, coffee-holding Lee.” During the small talk that followed, his acquaintance shifted to phrases like “Lee looking like he was caught red-handed” or “apparently, Lee got rubbed up the wrong way” which helped him to navigate through the conversation avoiding social mistakes.

He couldn't help but think about how inconvenient life had been before all this happened. The visual-to-text conversion didn't bother him much. However, his compulsive need to edit the text that constantly appeared in front of him was a major issue. This habit of his was natural since the texts were in their primitive forms, generated subconsciously from his visual perceptions. In his writing process, he would take these primitive linguistic formations and play with them until he liked what he saw. But now, with the flood of real-time texts, he felt powerless to edit them.

Sometimes, he would close his eyes, exhausted from the overwhelming flood of text. Then his thoughts would break through the barrier of his closed eyelids and flicker in the darkness. He longed to cry at times.

“I want to cry. But I can’t. Will it solve my problems? I wish I could cry my worries away. I don’t know what to do. I really don’t. I’m a fool. Is that why I want to cry? Because I am a fool?”

He badly wanted to improve this cluttered state but felt powerless to do so.

*

One day, the phrase “I can’t live like this” was consuming his mind. He tried to edit the text in front of him. Editing tended to be easier when the text appeared over a living organism. After seeing “Kim who was sitting and rubbing her cold hands together,” he reached for the “air conditioner remote control” and pushed the “power button” on it.

After a moment, the hand-rubbing Kim transformed into “Kim earnestly paying attention to his words, with hands elegantly gathered together.” He couldn’t help but notice that Kim appeared more beautiful than before, especially because of her enthusiastic and charming reactions to his stories. Although the change was subtle, it was undeniable, and it brought him immense pleasure.

During his writing sessions, he noticed that his substitutions and expansions often improved the quality of his writing unexpectedly. When the changes were made to the text hovering over living things, the degree of applied changes varied depending on the willingness and receptiveness of the subject - which he thought was just like the unintended quality enhancements. He proceeded cautiously with his edits, starting with people and moving on to objects. The work was by no means easy. Of course, he could change “messy and cluttered desk” to “clean, empty desk”. But the changes he really wanted to make were far more complex.

*

He continued to edit, unsure of how to reconstruct an object with words alone. He began by breaking them down, then reassembling them in different ways, changing their locations and colors. When he still wasn’t satisfied, he broke them down again, repeating this process until he achieved a suitable result. He adjusted the distance between objects, polished certain parts, and removed some pieces. In the end, what he saw was a completed piece that he’d never read before: it was both adequately filled and pleasantly emptied out.

*

His writings were seen as a work of art, a sculpture, by those who read them. He gained fame as a sculptor but he could only view his creations as bodies of text and never as sculpture pieces, until his death.